

# 불의와 매국을 용납치 말아야 한다

근 70년에 걸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민주화투쟁의 역사에는 4월인민봉기가 뚜렷한 자욱을 새기고있다.

4월인민봉기는 미국의 악랄한 식민지 지배정책과 그 주구인 리승만도당의 파쇼통치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 쌓인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다.

1960년 3월 15일 리승만도당의 부정선거에 격분한 마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번 선거는 무효다!》 등의 구호를 들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시위투쟁은 4월 11일 마산알바다에서 농돌에게 학살된 김주열학생의 시체가 발견된것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었다.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하여 남조선 전역에서 135만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리승만정권을 타도하자!》, 《학생들이 흘린 피를 헹가시 하지 말라!》는 구호를 들고 파쇼통치기구들을 짓부셔버림으로써 미국과 리승만도당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격노한 남조선인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누리를 진동하는 기세는 폭동진압무력의 야수적탄압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타

도하였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봉기를 통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일떠선 인민들의 영웅적기개와 불굴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을 독특히 보여주었다.

4월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54년이 되었지만 봉기자들이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념원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1960년 3.15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정보원, 군사이버사령부 등 관권, 금권을 총동원한 지난 《대선》을 통하여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은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인민의 지향에 정면도전하며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집요하게 획책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족이 요구하는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타격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근 70년간이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의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으며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국을 할애비로 머기면서 그 무슨 《핵 및 미사일위협》과 《북인권문제》에서의 《공동대응》과 《공동대처》를 떠들면서 극심한 친미사대범죄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야합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규모북침전쟁소동을 평판적으로 벌리면서 민족의 머기우에 전쟁의 불구름만 몰아오고있다. 지어는 통일문제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안중에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의 야망을 실현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현 《정권》의 출현이후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의 부활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사람들은 물론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불법개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 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초법집회참가자들을 비롯하여 저들의 독재강화와 파쇼통치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중복차파》세력으로 몰아 탄압하고 철창속에 갇혀가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다. 총칼로 권력을 강탈한 독재자들과 친일파들이 미화분식되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같은 군부독재시기에나 볼수 있는 각종 간첩단사건들이 조작되어 남조선사회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도전하는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반역정치를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룰수 없으며 대결이 심화되고 나아가서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썩은 정치에 항거한 4.19봉기자들의 그 투쟁정신과 결사의 의지로 굳게 뭉쳐 외세를 몰아내고 불의와 매국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이다.

김응철

## 포다시 드러난 대결적정체

얼마전 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의안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무인기사건의 《복소행》설이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의 복사판이라는것을 까밝히는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남조선당국이 《유감》이니, 《남남갈등은 노련 대남심리전》이니 뉘니 하는것은 모략의 능수들이 부리는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무인기사건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사건조사를 공정하게 한것이 아니라 《복소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것을 《립중》하는 방향에서 억지로 짜맞추기수사를 하였다. 그러니 그 수사결과가 어떻겠는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아무런 과학적신빙성도 없고 그것도 초기 공개했던 자료들이 대폭 수정된경원체 철부지야이의 쪽무이그림따추기마냥 진행되고 조작된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중간조사결과》의 실체이다.

남조선당국이 《복소행》이라며 내놓은 증거물들이라는것이 얼마나 허황하고 유지하였으면 남조선 각계층측에서 《아닐새라 이번에도 복에 책임 떠넘기는 당국》, 《호언하던 청와대방공망에 치명적인 구멍을 송송 뚫어놓은 무인기가 복의것이냐고?!...》이라며 야유조소하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국방위원회 결의단 진상공개장에 대해 《유감》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는것은 저들에게 쏘리는 비난의 화살을 돌려세워보려는 단말차적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김철호

## 박근혜의 제안은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킨다

### 남조선의 학자가 비난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남조선 집권자의 반통일말질을 비난하는 학자 고승우의 글을 실었다.

글은 박근혜가 도이쥔란드행각기간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한 3대제안》이라 는것을 내놓는데 대해 언급 하였다.

《인도적문제해결》, 《민생기반구축》, 《남북주민간 동질성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3대제안》은 빈발뿐이며 실망스럽게 그지없다고 밝혔다.

특별한 내용도 없는 제안이라는것을 돈을 많이 써가며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그

발표장소를 도이쥔란드로 선택한것은 복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남북이 이미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통일의 대원칙에 대해 합의하여 국제적으로 큰 흐름을 밟았지만 박근혜는 그에 대해 침묵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리명박 《정부》와 같이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을 외면하고 미국과 함께 북에 대한 압박 및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그 누구의 《금변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

을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북의 반발을 사고있다고 단죄 하였다.

박근혜가 집권후 《5.24조치》를 계속 고집하면서 남북교류협력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남북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렇게 놓고볼 때 박근혜의 이번 제안이라는것은 오히려 남북사이의 불신만 고조시키뿐이라고 주장 하였다.

글은 《통일의 청사진은 이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등에 다 밝혀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쥔란드에서 내놓은 이른바 《드레즈덴선언》은 그 내용으로 보나 발표한 장소로 보나 어느 하나도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는 빈발공부인것으로 하여 지금 은 겨레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박근혜가 이 《선언》이라는데서 《인도주의적문제해결》과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기반구축》, 《동질성회복》을 골자로 하는 《대북3대제안》이 마치 획기적인 새로운 《통일방안》이라고 되는것처럼 너스레를 떨었지만 사실 그것은 빈절제기뿐인 《빛좋은 개살구》라 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더우기 북무할수 없는것은 민족파문제를 남의 나라 땅에까지 들고다니며 비굴하게 놀아낸 박근혜의 눈뜨고 볼수 없는 추태이다.

도이쥔란드를 방문하기 전에 남조선집권자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 수치의 대명사로 기록될것이다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석하였다. 거기서도 그는 이른바 그 누구의 《핵문제》를 터무니없이 곁들면서 《핵무기없는 세상》은 《북핵포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북에 핵을 포기하라는 메세지를 좀 더 확고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는 꾀변도 늘어놓았다. 또 《녕변에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체르노빌핵발전소보다 더 큰 핵재앙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느니, 《북의 핵은 데로에 사용될수 있고 주변국 핵무장경쟁을 야기시킬수 있다.》느니,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느니 뉘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지어 그는 외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국의 병진로선까지 걸고들면서 《불가능하다.》느니 뉘니 하고 시비

질하였다. 그의 발언을 통해 세상사람들은 동족에 대한 국도의 불신과 증오로 뼈속까지 물들어진 박근혜의 진면모를 독특히 보았다. 그러던 그가 다음번 행적지인 도이쥔란드에 가서는 마치 《민족을 격정하는 애국가》나 뉘든지 그 무슨 《불신의 장벽》이니, 《통일》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으니 실로 소가 웃다구 푸레미러질 일이 아닐수 없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열의 쓰라린 비극과 고통은 밖에 들고나갈 자랑거리도 아니며 오히려 한시바베가서야 할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이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세기적숙원인 통일문제를 박근혜가 외국에서, 그것도 남들의 《통일방식》을 본따야 하는것처럼 풀수없이 놀아댄것은 두고두고 저주받을 일

이다.

북과 남사이에는 이미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통일의 리정표가 마련되어있다.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확약하고 온 겨레가 열렬히 지지한것은 통일의 대강들을 외면한채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 청춘을 모아놓고 《통일》을 운운한 박근혜의 추태야말로 누가 보아도 썩불견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집권자는 독특히 알아야 한다.

민족의 수치이고 불행인 민족분열의 쓰라린 비극과 고통을 끝장내는것은 오직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민족문제이다.

박근혜의 《드레즈덴선언》에는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 박근혜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대북3대제안》이 어찌고저찌고 했는 데 여기는 조선반도이지 도이쥔란드가 아니다.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체제통일》이 이 땅우에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줄것이라는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제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제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앞에서 발표한것으로 하여 그 출발과 의미자체부터 삐뚤어진 《드레즈덴선언》은 우리 민족분열사의 갈피에 자기의 부끄러운 행적만을 남기수치의 대명사로 기록될것이다.

서철수

##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과 적대시정책을 짓부셔버릴것이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성명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미국의 악랄한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미국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유엔무대에까지 끌고가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을 위한 모략소동이며 현대판전쟁언언이다 다름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수많은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생겨

나게 만든 장본인이며 그들이 장구한 기간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지내는 기막힌 비극을 겪게 한 민족분열의 원흉이며 천하의 극악한 인권침해자라고 단죄하였다.

저들의 죄악에 대해 끝없는 사과할 대신에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고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불량난질을 하는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장본인이며 인권유린자라고 규탄하였다.

인민사랑의 정치, 광복정치가 펼쳐지는 인민대중정치의 사회주의사회인 공화국에서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북무하고 인권을 인민중심의 담보되고있다고 격언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국인민과 함께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과 적대시정책을 철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짓부셔버릴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남조선에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관련한 현 남조선당국자의 태도가 각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란 서울시의 《탈북자》출신 공무원이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어 북에 넘겼다는 《간첩》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원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납득될수 없는 모순과 억지투성인것으로 하여 각계의 의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2월 정보원이 내든 《위력한 증거》라는것이 정보원수사팀에 의해 날조된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우기 위조공문서를 만든 정보원첩자가 정보원의 범죄행위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과정에 유서를 갈아버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 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또 하나의 모략사건이라는것이 백일하에 드러난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정치권과 각계에서는 이 사건을 《제2의 불법대선》,

《초유의 증거조작행위》이라고 하면서 법적 쫓고있다.

이쯤 됐으면 조작사건의 주모자인 정보원 원장인 남재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재준은 15일 서둘러 《대국민사과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듯이 발뺌을 하고나섰다.

문제는 남재준의 이런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위를 묵인보호하고있는 현

## 언제까지 끼고돌려는가

집권자의 태도이다.

바로 남재준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한 날 박근혜는 그 무슨 《유감》이니, 《재발시 엄벌》이니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는것으로 남재준을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바로 박근혜는 지난 《국정원대선》개입사건때에도 이런 식으로 남재준을 살려준바 있다.

이것은 박근혜와 남재준이 꺾을래야 꺾을수 없는 결탁관계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하다면 현 남조선집권자가 왜 그토록 남재준을 끼고노는가 하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재준은 지난 《대선》때 박근혜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 공로로 정보원 원장자리에 앉아 정보원을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반공화국정탐모략의 본거지로 만들고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남재준이다.

이런 남재준을 비호두둔하고 적극 부추기는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이다.

지금 박근혜는 남재준과 같은 반북대

결광신자들과 과거 《유신》잔당들로 집안을 꾸리고 어떻게 하나 이런자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려 모지름을 쓰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수 없다.

과거 《유신》독재자가 누구의 손에 황천객이 됐는가는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박근혜가 남재준파위를 끼고둘수록 겨레의 더 큰 규탄과 손가락질만을 받게 될뿐이다.

박철남



정보원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반 《정부》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